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. 31.(목) / 총 4매(본문3)
담당부서	항공교통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, 주무관 이준호 • ☎ (044) 201-4299, 4301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대전 대덕구 일원, 2월부터 드론 시범공역 운영

31일 국토부-대전시 합의서 체결...6개월간 시험운영 후 하반기 지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대전광역시(시장 허태정)는 31일 “대전드론 공원 운영 등에 관한 합의식”을 갖고, 그동안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한 안전관리에 따라 대전 드론공원을 운영하는데 합의하였다.
- 이번 합의서는 국토부가 대전시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드론공역을 지정하는 내용으로,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드론공역을 지정할 예정이다.

【합의식 개요】

- ◇ (일시·장소) '19.1.31.(목) 14:00~14:15, 대전TP 로봇센터 회의실
- ◇ (서명권자) 국토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,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
- ◇ (내용) 대전 드론공원 조성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
- ◇ (참석)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, 대전 드론기업* 등 관계자 20여 명
 - * 유콘시스템, 네스앤틱, 두시텍, 케바드론, 넥스컴스, 디브레인

- 그동안 대전에는 많은 드론 관련 업체*가 위치하고 있으나, 인근에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없어서 연구개발이나 시제품 성능시험을 위해 전남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.

* 드론 완성품 업체 9개사(전국 40% 집적), 부품업체 8개사, 항우연 등 연구기관이 위치

- 이러한 드론업체 현장애로 해소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, 국토부, 대전시, 한국원안전위원회 등 많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대덕구 문평동 일원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드론 전용공역을 확보하게 되었다.
- 대전 드론공원은 시계비행거리 이내에 민가(주택)가 없으며 금강과 갑천 합류지점으로 넓은 시야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, 대전 3공단 주변지역으로 동호인 외 일반시민들의 현장접근이 거의 없는 드론 비행에 최적의 장소이다.
- 대전시가 드론공원 조성 부지 내에 안전관리 시설로 CCTV, 안내 표지판, 조종부스, 안전펜스 등 지상시설물 설치와 공원 내 상주 인력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, 대전테크노파크를 운영주관으로 위탁하여 2월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



-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“앞으로도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공원 확대, 인프라 구축 등 안전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” 말했다.

참고

합의식 사진

